

##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11월 1호

## ◆ 주요 동향

1. 상하이항 10월 물동량 월간 최고 기록 또다시 경신  
420万TEU ! 上海港单月集装箱吞吐量再创历史新高
2. 상하이항운거래소,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정산 운임지수(SCFIS) 공식 발표  
上海出口集装箱结算运价指数正式发布
3. Ningbo-Zhoushan항, 10만톤급 선석 32개로 늘어나  
宁波舟山港又多一个10万吨级泊位 总数达32个
4. 2020년 3분기 중국 항만기업의 경영실적  
前三季度, 全国港口究竟赚了多少钱?
5. COSCO, 차세대 전자해도 소프트웨어 'Haining Chart' 첫 공개  
中远海运研发的新一代电子海图软件Haining Chart首次公开亮相
6. 칭다오항, 대형 유조선에 벙커링 서비스 정식 제공 시작  
山东港口青岛港正式开启大型油轮在泊位供油服务
7. 중국, 10개 수입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역 설치  
中国设立十个进口贸易促进创新示范区
8. "Bay Area One Port Connection(湾区一港通)", 연내 광둥성 6개 지급시에 적용  
“湾区一港通”年内将覆盖广东省内六地市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 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 기타 동향

9. 라오닝항그룹, 첫 상용차 무역 정기노선 개통

辽港集团开通首条商品车外贸班轮航线

<http://www.zgsyb.com/news.html?aid=573785>

10. 중국 국무원, 수입 콜드체인 식품 예방적 전면 소독사업 방안 발표

国务院印发进口冷链食品预防性全面消毒工作方案

<http://www.zgsyb.com/news.html?aid=573729>

11. OOCL, 23,000만TEU급 컨테이너선 7척 발주

东方海外订购7艘 23000TEU集装箱船

<http://www.zgsyb.com/news.html?aid=573387>

12. 다롄항, MSC 첫 근해노선 개통해 극동 직항노선 공백 해소

大连港开通地中海航运首条近洋航线, 填补远东直航网络空白

<https://www.cnss.com.cn/html/gkdt/20201111/338509.html>

13. 순평항공, 광군절 물류피크 지원 위해 61번째 신규 화물기 투입

顺丰航空第61架新运力投用 助战“双十一”物流高峰

<http://news.carnoc.com/list/548/548003.html>

14. JD.com, 광군절 전국 83%의 농촌지역에 24시간 배송 실현

下单15分钟送到村, 京东11.11全国83%的乡镇实现24小时达

[https://www.sohu.com/a/431140472\\_310397](https://www.sohu.com/a/431140472_310397)

작성자 : 장형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육천란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mailto:kmishanghai@naver.com) / +86-21-6090-0395)

## 상하이항 10월 물동량 월간 최고 기록 또다시 경신

- 2020년 10월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대비 15.7% 증가한 420만TEU로, 지난 7월의 월간 신기록보다 29.7만TEU를 초과하는 최고 기록을 달성함
- 지난 10월 성동그룹(盛东公司)과 관동그룹(冠东公司)의 물동량은 각각 82만TEU 및 72만TEU를 초과했으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
  - 양산4기 자동화부두 운영사인 상동지사(尚东分公司)는 지난 10월 45.5만TEU, 후동그룹(沪东公司)은 39만TEU, 그리고 이동지사(宜东分公司)는 42만TEU를 처리해 마찬가지로 월간 신기록을 경신했음
- 상하이항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생산관리 제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으며, 스마트 항만 관리 모듈도 개발하는 등 토털관리로의 전환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 9월 28일 SIPG는 '디지털화', '플랫폼화' 등 신기술로 산업 내 및 산업간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장강 해운항만 블록체인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했다
  - 10월 15일~16일 SIPG는 또 ICT(쑤저우) 프로젝트, Sea & Rail 복합운송 등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중 임항 ICT 프로젝트는 이미 6월에 상하이 임항지역 터미널에서 시범 운영을 했음

(航运界, 2020. 11. 03.)

[https://mp.weixin.qq.com/s/6WndK7F5mEq\\_ygpororPTw](https://mp.weixin.qq.com/s/6WndK7F5mEq_ygpororPTw)

## 상하이항운거래소,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정산 운임지수(SCFIS) 공식 발표

- 2020년 11월 2일, 상하이항운거래소는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정산 운임지수(SCFIS)’를 공식 발표함
  - SCFIS는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현물 해운시장의 정산 운임 변동을 나타내는데, 상하이~유럽 및 상하이~미서안 노선에서의 컨테이너선 출발이후의 정산 운임 평균 수준을 반영함
- 1998년 상하이항운거래소가 발표한 중국 수출컨테이너 운임지수(CCFI)는 그동안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시장에서 ‘풍향계’ 역할을 해옴
  - 2009년 상하이항운거래소는 국제 컨테이너 해운화물 파생상품 거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를 개발함
  - SCFI는 약 10여 년 동안 현물과 선물운임 거래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왔으며, 중국 해운시장의 대표적인 지수로 대형 화주와 선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음
- 컨테이너 무역량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의 성수기-비수기간 변동이 커지고, 현물시장의 운임도 이에 따른 급격한 변동세를 보임
  - 상하이항운거래소는 이러한 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CCFI와 SCFI를 기반으로 SCFIS를 개발함
- SCFI와 비교할 때 SCFIS는 두 가지 새로운 특징이 있음
  - 첫 번째 특징은 SCFIS가 ‘현물시장에서 컨테이너선 출발 후의 정산용 운임’을 사용해 원천 데이터부터 잠재된 선복예약과 실제 선박 출항 이후의 운임 차이를 배제시킴
  - 두 번째 특징으로 SCFIS는 자동데이터수집, 검증, 편집과 조기경보시스템을 사용한 완전자동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어 인위적인 조작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음
-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상하이항운거래소는 컨테이너, 벌크, 매매선, 선원급여, 일대일로 등 다양한 영역의 21가지 ‘상하이해운지수’ 시리즈를 발표함
  - SCFIS가 가세하면서 상하이해운지수는 한 층 더 격상된 질적 성장단계로 전향하고 상하이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해운센터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航运界, 2020. 11. 03.)

[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40407](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40407)

## 닝보-저우산항, 10만톤급 선석 32개로 늘어나

- 2020년 11월 2일 닝보-저우산항 메이산(梅山)항구 컨테이너터미널 8번 선석을 포함한 6개 공정이 준공 검수를 통과함
  - 이중 8번 선석에는 15만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메이산 항구에는 10만톤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 가능한 심수 선석이 8개로 늘어나
  - 메이산항 6번~10번 선석은 중국 국내에서 건설등급이 가장 높은 컨테이너터미널로, 총 투자액은 약 79억 위안임
  - 이미 운영 중인 1번~5번 선석의 경우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이 1,000만TEU 이상으로 예상되어 메이산항은 환산(穿山)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이은 세계 4번째 1,000만TEU 이상 처리 '컨' 터미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11월 2일 기준 닝보항에는 총 350개의 선석(1만톤급 이상 선석 114개)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에 10만톤급 선석 1개가 추가되어 10만톤급 이상 선석은 총 32개로 늘어나
- 환산항은 현재 닝보-저우산항의 핵심 구역으로 11개의 대형, 초대형 심수 컨테이너 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선석길이는 3,740미터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할 수 있음
  - 환산항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1,000만TEU 이상으로, 전체 닝보-저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환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인근에는 저장(浙江)성 최대 광석터미널인 환산항 중자이광석(中宅矿石)터미널이 현재 건설 중에 있음
  - 중자이광석 터미널 2기 공사 중 동측 선석(3.5만톤급)은 이미 건설되었으며, 올해 말 30만톤급, 5만톤급 선석 각 1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임
  - 2기 공사의 설계 하역능력은 2,000만톤으로 완공되면 1기 터미널의 하역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닝보-저우산항의 동북아 철광석 환적기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닝보-저우산항은 연간 물동량 11억톤이 넘는 세계 유일 초대형 항만으로, 화물 처리 실적은 연속 11년 세계 1위, 컨테이너 물동량(2,753만TEU)은 세계 3위를 차지함
  - 교통운수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닝보-저우산항의 화물 처리실적은 전국 연해 항만의 12.65%로 지난해 말보다 0.46%포인트 늘어났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국 연해 항만의 12.39%로 작년 말보다 0.47%포인트 증가함

(航运在线, 2020. 11. 03.)

<http://news.sol.com.cn/html/2020-11-03/AFC33DAD2A0FB8DAE.shtml>

## 2020년 3분기 중국 항만기업의 경영실적

- 최근 항구권(港口圈)은 2020년 3분기 항만기업의 경영실적 통계를 발표했음
  - 전국 20개 항만 상장기업의 2020년 3분기 재무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SIPG, Ningbo, Shimen 각각 192억 1,000만 위안, 129억 9,000만 위안, 110억 5,000만의 영업 수익을 기록하며 상위 3위를 차지함
  - 순이익 순으로는 SIPG, Chingdao, Ningbo가 60억 1,000만 위안, 29억 4,700만 위안, 27억 1,100만 위안으로 상위 3위를 차지함
- 3분기에 20개 항만기업 중 11개 항만의 영업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고, SIPG, Ningbo 등의 선두 기업은 영업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국 항만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함
  - 그러나 비록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지만 대부분 항만기업의 순수익은 소폭증가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완화 이후 항만기업의 회복세가 양호한 것으로 보임
- 영업매출이 동기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항만은 베이부만항, 르자오항, 광저우항임
  - 베이부만항은 전국 연해 항만 중 유일하게 화물 처리실적과 컨테이너 물동량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한 항만으로 성장률 1위를 차지함
  - 르자오항은 산둥항의 통합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항로를 개척했고, 코로나19 이후 9개월간 물동량은 성장세를 유지함
  - 광저우항 역시 3분기 17개 무역 정기노선을 추가하는 등 노선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임
- 영업매출이 동기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3대 항만은 SIPG, Tangshan, Ningbo항임
  - SIPG의 상하이항과 Ningbo항은 전국 1~2위의 컨테이너 항만이고, Tangshan항은 화물 처리실적 기준 중국 3위 항만임을 고려할 때, 지난 9개월 동안 선사들의 휴항이나 석탄 및 철강재 생산량과 수요량 파동이 대형 허브항에 미친 충격이 다른 지선 항만보다 큰 것으로 보임
- 순이익 순위 중 동기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항만기업은 다롄항, 렌원강항, 샤먼항이고, 전년 대비 순이익이 하락한 항만 중 하락폭이 가장 큰 항만기업으로는 충칭강지우(重庆港九), 자오상항구(招商港口), SIPG임

(财经CNSS, 2020. 11. 3.)

<https://www.cnss.com.cn/html/hygc/20201103/338351.html>

## COSCO, 차세대 전자해도 소프트웨어 ‘Haining Chart’ 첫 공개

- COSCO 산하 COSCO(광저우)유한회사는 2020년 10월 28일 제3회 완구항항발전포럼(湾区港航发展论坛)에서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자해도 서비스 소프트웨어인 ‘Haining Chart’를 국내 최초로 공개함
  - 이 소프트웨어는 COSCO(광저우) 산하의 ‘광저우하이닝하이우기술자문유한회사(广州海宁海务技术咨询有限公司)’가 중국 7개 정부부처가 발표한 ‘스마트해운 발전 지도의견’에 따라 다년간의 해도 업무 경험을 융합해 개발한 것임
  - ‘Haining Chart’는 중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영국수로국(UKHO)의 기술 인증을 받은 차세대 전자해도 소프트웨어로서 국제수로기구(IHO)의 관련 표준과 규범을 엄격히 따르고 있음
  - ‘Haining Chart’는 중·영 두 개 언어로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 구성과 사용에 있어 백여 명의 전문 기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조작 습관에도 적합함
  - ‘Haining Chart’는 선박 구매와 전자해도의 업데이트 및 데이터 전송에 대한 현지화 솔루션을 제공해 효율적으로 선박 운항 안전을 보장하고, 해도 구매 원가를 절감함
- ‘Haining Chart’ 전자해도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웨이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해운과학 발전의 대표적인 성과로서, 국내외 선사에 더욱 효율적인 선박 종합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해운산업의 디지털화에 있어 더욱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中国远洋海运集团有限公司, 2020. 10. 30.)

[http://www.coscoshipping.com/art/2020/10/30/art\\_6864\\_181027.html](http://www.coscoshipping.com/art/2020/10/30/art_6864_181027.html)

## 칭다오항, 대형 유조선에 벙커링 서비스 정식 제공 시작

- 2020년 11월 4일 ‘통위(通宇)11’ 선박이 칭다오항에서 성공적으로 대형 유조선 ‘쑤다반(苏达班)’에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함
  - 이번 벙커링 서비스는 칭다오항스화사(青岛港实华公司)가 제공한 것으로, 이는 칭다오항에서 대형 유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벙커링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칭다오항스화사는 각 관계 부서와 협력을 통해 화물을 하역하는 동시에 선박에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선주는 이를 통해 10시간 정도의 스케줄을 단축하는 효과와 함께 비용 절감 효과도 보게 됨
- 칭다오항은 세계 원유집산센터의 하나로, 유류 처리실적이 4년 연속 1억톤을 초과했으며, 유류 수입량 기준으로 중국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칭다오항은 중국 북방지역 벙커링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칭다오항은 터미널 및 묘박지를 포함한 전방위 벙커링 서비스 역량을 확보함
-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대형 유조선이 칭다오항에서 급유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선박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의 발전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中华航运, 2020. 11. 03.)

<https://mp.weixin.qq.com/s/z-g7WgMgCVccZbZleORrcw>

## 중국, 10개 수입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역 설치

■ 2020년 11월 4일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인민은행, 세관 등 9개 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10개 수입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역의 설치를 발표함

- 10개 시범구역\*은 동중서부와 동북부 노후 공업기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육해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수입발전 동력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 상하이홍차오비즈니스지구(上海市虹桥商务区), 랴오닝성다롄진푸신구(辽宁省大连金普新区), 장쑤성 쿤산시(江苏省昆山市), 절강성 이우시(浙江省义乌市), 안후이성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安徽省合肥经济技术开发区), 푸젠성 샤먼후리구(福建省厦门湖里区), 산둥성 칭다오 서해안신구(山东省青岛西海岸新区), 광둥성 광저우 난사구(广东省广州南沙区), 쓰촨성 톈푸신구(四川省天府新区), 산시성 시안국제항만구역(陕西省西安国际港务区)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세 수준을 낮추고, 무역의 편리화를 제고했으며 수입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

- 중국은 국내 시장 공간이 넓고 잠재력이 크며, 중위 소득 집단은 4억명 이상으로, 수입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수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로 전년 동기대비 0.8%포인트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수입이 전 세계 경제회복을 촉진함

■ 시범구역에는 '무역촉진' 및 '무역혁신' 등 두 가지 기능이 부여됨

- '무역촉진'은 수입촉진, 산업촉진, 소비촉진을 포함하며, '무역혁신'은 정책혁신, 서비스혁신, 패러다임혁신을 포함함

■ 중국 상무부는 첨단기술, 설비 및 서비스 수입 확대, 민생 관련 제품 수입 개선 지원, 수입업체 발전 지원, 수입상품 마케팅 최적화, 규제 편의화 수준 향상, 시범지역 수입무역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中国经济网, 2020. 11. 05)

[http://www.ce.cn/xwzx/gnsz/gdxw/202011/05/t20201105\\_35976774.shtml](http://www.ce.cn/xwzx/gnsz/gdxw/202011/05/t20201105_35976774.shtml)

## “Bay Area One Port Connection(湾区一港通)”, 연내 광둥성 6개 지급시에 적용

- 2020년 11월 5일, 광저우세관과 광저우항그룹이 함께 추진하는 ‘Bay Area One Port Connection’ (湾区一港通, 이하 ‘만구일항통’) 프로젝트가 광저우항 센터에서 정식 출범됨
  - 이로써 난사항을 허브항으로하고 광저우, 포산(佛山), 자오칭(肇庆), 칭위안(清远), 윈푸(云浮), 샤오관(韶关) 등 여러 주강 내하 부두를 지선항으로 하는 항만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임
  - 대만구(Great Bay Area, 大湾区) 내 난사항을 통하는 수출입 화물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이 지역 항만클러스터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만구일항통(湾区一港通)’은 남해 난항과 난사항을 하나의 동일한 항구처럼 편리하게 취급하며, 통관과 물류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국제물류 원가를 낮춤
- ‘만구일항통(湾区一港通)’ 프로젝트 시범 운영 이후 지난 7월 18일 광둥즈카오공조유한회사(广东志高空调有限公司)의 8개 수출 컨테이너가 최초로 정식 수출 업무를 마쳤고, 지난 10월 29일에는 598톤의 수출 타일이 자오칭산통항에서 통관 절차를 마치고 바지선으로 난사항에 도착하면서 ‘만구일항통’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시작을 알림
  - ‘만구일항통’ 프로젝트는 자오칭과 난사항의 양방향 업무 연동을 추진하여 자오칭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함
  - ‘만구일항통’으로 난사항과 기타 내하 부두 간의 업무가 일체화되고, 정보화 수단을 통한 혁신적인 관리감독 및 전 과정 무서류 진행, 처리방식의 시스템화가 실현될 것임
  - 매년 50만여 개의 컨테이너가 이 프로젝트의 모델을 통해 수출입 될 것이며, 수출입 기업들이 연간 500만 위안 이상의 원가절감을 할 것으로 추산됨. 뿐만 아니라 육상운송의 비중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항만 관리 이념을 실현할 것으로 보임
- ‘만구일항통’ 프로젝트는 연내 광저우와 포산, 자오칭, 칭위안, 윈푸, 샤오관 등 주강삼각주 항만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임
  - 광저우세관은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업무적 지원을 병행하여 광저우항그룹과 함께 프로젝트를 최적으로 관리하여 일대일로와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에 기여할 것임

(中国水运网, 2020. 11. 5.)

<http://www.zgsyb.com/news.html?aid=573317>